

밝은 미래 · 명예로운 기부문화 9

‘돕지 못해 애가 끓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박영숙 (본회 집행위원장)

일반적으로 기부란 부자들이 큰돈을 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작은 것을 모아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의 한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원불교 강남교당의 박청수 교무이다. 박교무는 평생지병으로 ‘돕지 못해 애가 끓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박교무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나라의 수는 44개국이다. 캄보디아의 지뢰제거, 히말라야 설산에 종합병원건설, 미얀마의 우물파기, 북한의 폐결핵환자 돕기, 사할린과 연해주의 동포돕기 등 박교무는 큰살림을 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활동의 뒷받침은 큰손의 기부로서가 아니라 교무의 병을 함께 아파하는 교도들의 나눔의 실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박교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50년에 가까운 작가 생활을 하면서 현재 30년 간 아프리카, 인도, 남미 등지의 나환자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소노 아야코라는 이가 바로 그이다.

소노씨의 일을 지탱하게 하여주는 재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동기로 보내오는 성금으로 충당된다. ‘손녀 손자가 태어났다’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애가 시험에 합격했다’ ‘운동 경기에서 이겼다’ ‘부모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결혼을 자축하기 위해’ 등도 나눔의 동기가 되고 있다. 소노씨는 심지어 <개>로부터의 기부금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애견가가 개와 함께 하는 산책 도중 길가에서 주운 돈을 모아서 보내온 것이다. 이유가 없어서 기부를 못하는 격이다.

사람들이 ‘돕지 못해 애가 끓는 병’을 앓게 하는 일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랑의 화신들은 세계 한 지붕 밑 가족을 돕는 큰 살림꾼이라는 점이 비슷하지만 모금하는 방식도 다른꼴이다. 작은 것을 모아 큰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연인 것은 이 두 여성이 모두 안양의 성당 자로마을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소노씨는 1972년부터 성당 자로마을과의 인연을 맺고 있다. 소노씨가 지금의 해외 선교사 지원 활동을 하게된 동기가 바로 성당 자로마을의 창시자인 이경재 신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소노씨는 이경재 신부에게서 감명 받았다는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은 좋은 일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오늘도 작은 나눔의 문화 확산에 힘쓰며 자신을 이 신부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1999년 연말에 창립된 한국여성재단의 소망도 많은 사람들에게 ‘돕지 못해 애가 끓는 병’을 전파하는 것이며 어디에서인가 절망하고 있거나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힘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힘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